# 북스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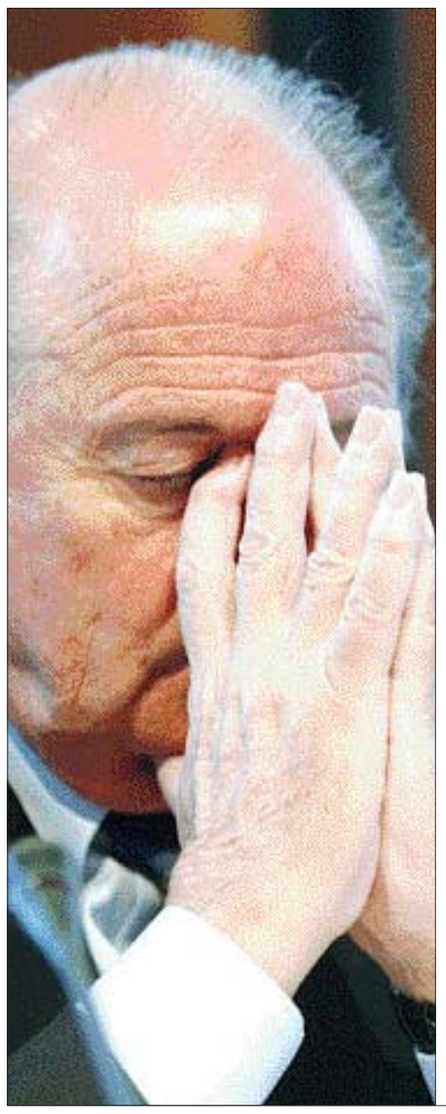
## 동화작가 故권정생씨 동화책 2권 개정 출간

지난 5월 작고한 동화작가 고(故) 권정생씨의 책 두 권이 10여년 만에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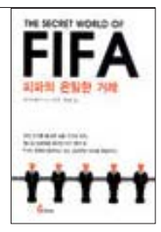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는 판화가 이철수씨가, '초가집이 있던 마을'은 광주 출신 화가 홍성담씨가 각각 삽화를 그렸다. '도토리…'는 찾는 이가 없어 생쥐, 토끼, 참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어느 산골의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 이야기다. 종지기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초가집이…'는 6·25 전쟁 때문에 가족과 친구를 잃은 경상도 산골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전해준다. 〈분도출판사·초가집이 1만원 도토리 8천500원〉

# 회장님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요?



## 피파의 은밀한 거래 제닝스 지음



제88회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극적인 승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페어플레이를 전제로 한다. 이를 증명하듯, 피파(FIFA·세계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는 노란색 '페어플레이'기(旗)가 꼭 등장한다. 그래서 축구는 항상 '페어'할까. 스포츠는 열광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지난 2006년 6월23일 독일 하노버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열린 18회 독일월드컵 G조 한국과 스위스 경기는 0-2로 스위스의 승리로 끝나 한국의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당시 한국팀이 앞선 토고, 프랑스전을 1승1무로 마쳐 스위스전에서 무승부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기에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컸다.

경기가 끝나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심판의 판정에 대해 항의하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그 중에는 "피파 회장 제프 블래터가 스위스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편파적이었고, 특히 두 번째 프라이의 골은 확실한 오프사이드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야말로 의혹 뿐인 이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면, 기가 찰 일이다.

영국의 조사 전문 기자 앤드류 제닝스가 쓴 '피파의 은밀한 유혹'을 읽은 후라면 블래터〈사진〉 피파 회장을 향한 네티즌들의 투정같은 항의가 장난으로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4년 동안의 취재를 통해 세계 축구의 최고기관 피파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조금 정확히 표현하자면, 최근 3선에 성공하면서 1998년부터 10년째 회장을 맡고 있는 블래터를 해부했다. 그것도 비리를.

저자는 블래터의 현재를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4년 6월 있었던 피파 회장 선거에서 13년간 피파를 이끌었던 축구 종가 영국 출신의 회장 스탠리경이 브라질 출신의 아벨란제에게 진다. 언론은 "스탠리경은 너무 많은 돈과 너무 지나친 정치색이라는 두 악마로부터 축구를 지키려는 보루였다. 아벨란제는 '너무 많은'의 산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아벨란제의 실탄이 돼준 것은 다름 아닌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회장 다슬러였다.

블래터가 피파에 들어간 것은 이듬해인 1975년. 다슬러는 론진의 육상 경기용 시계회사에서 홍보업무를 하던 블래터를 발탁해 아디다스에서 훈련시킨 후 피파에 '낙하산'으로 넣었다. 블래터는 이후 30년 가까이 피파에서 사무총장으로, 회장으로 군림하고 있다.

저자는 피파의 고위 간부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입장권을 몰래 빼돌려 팔아 수익을 챙겼고, 블래터는 이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한다. 또 블래터가 축구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파운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스위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다. 피파의 TV·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ISL'(인터네셔널 스포츠&레져)이 2001년 파산하면서 'ISL'과 피파간의 뇌물 연결 관계가 드러났다고 말한다. 블래터는 이 회사와 뇌물수수 의혹에 휘말려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밖에 저자는 어떻게 독일이 2006년 월드컵 유치권을 얻었는지, 2010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각국 축구협회와 피파가 막후에서 어떻게 접촉했는지 등을 낱낱이 공개한다. 신문의 르포기사를 보는 듯한 생생한 묘사가 사실감을 더해주고, 축구를 취재한 현직 기자들의 깔끔한 번역이 돋보인다.

〈파프리카·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가위질속에 피어난 아프간 여성들의 희망

## 카불 미용학교 데보라 로드리게즈 지음

평범한 헤어디자이너였던 데보라 로드리게즈는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해외 봉사활동을 결심한 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행 비행기를 탄다.

그러나 '국경없는 의사회' 일원으로 그곳을 찾은 그녀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원, 엔지니어 등 숱한 전문가들 속에서 자신이 해야할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그녀가 고민 끝에 택한 것은 자신이 20여년 동안 익힌 미용 기술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카불 미용학교'는 미국인 데보라 로드리게즈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미용학교를 운영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과 나눈 5년 동안의 애환과 일상을 기록한 체험기다.

지난 2002년 카불을 방문한 그녀는 남성들이 출입할 수 없는 '금남의 구역'인 카불의 한 미용실을 방문한 뒤 자신이 찾는 봉사활동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쓰지 않고는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아프간 여성들의 자립과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미용기술'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후 그녀는 여성의 자립을 혐오하는 탈레반 세력과 아프가니스탄 여성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도 미용사 지망생들에게 염색법, 퍼머기술을 가르치면서 '희망'을 일깨워준다.

그곳에서 필자는 남편의 구타와 사막의 혹한에도 굶주리는 가족들을 위해 미용기술을 배우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만난다.

'카불 미용학교'는 미용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이자 아프간 여성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한다.

여성들의 전용공간인 미용실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내전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지난한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희망을 싹 틔우게 된다.

데보라 로드리게즈 자신도 아프가니스탄 남자와 재혼하는 등 새로운 삶을 꾸린다.

데보라 로드리게즈는 "아프가니스탄에 무조건 불행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그들이 우리의 북적대는 러시아워 전철과 갈수록 높아지는 실업률을 모르듯이 우리도 그들의 진짜 삶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길산·1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새책

▲통계센스=일본의 유명 경제학자 가도쿠라 다카시가 우리 일상 속에 감춰진 통계 이야기를 풀어썼다. 도대체 믿기 힘든 평균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각종 연구소가 발표하는 경제효과는 믿을 만 한 것인지, 통계에서 빠진 지하경제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파헤친다. 〈다산북스·1만3천원〉

▲미국 신보수주의와 대중문화 읽기=미국 대중문화에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대중문화의 각 분야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설명한다. 언제나 미국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영화, 상업화 일로를 걷는 대중음악, 시장의 논리에 재편되는 미술 등을 날카로운 소장파 전문가의 시선으로 파헤친다. 〈책세상·1만2천원〉

▲먹고 자는 곳 사는 곳='여자 오쿠다 히데오'로 불릴 정도의 유머 감각을 가진 다이라 아즈코의 장편소설로 일본 후지TV에서 '사랑은 작업화를 타고'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방영됐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두 명의 여 주인공이 씩씩하게 삶을 헤쳐나간다. 〈웅진지식하우스·1만원〉

▲토니와 프랭키=1987년 페미나상을 수상한 기자 출신 프랑스 소설가 알랭 압시르의 장편소설. 영국 미술계의 거장 프란시스 베이컨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베이컨의 실제 동성 애인이었던 모델 조지 다이어의 이야기를 소설화해 베이컨의 삶과 작품 세계 이면을 보여준다. 〈현대문학·1만원〉

▲세계가 높이 산 한국의 문기=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가 한글의 위대함과 그것을 탄생시킨 민족의 저력을 문기(文氣)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냈다. '직지심체요절', '무구정광다라니경' 등 고문에 이어 한글의 원리와 발달·수난사를 소개하고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한다. 〈소나무·1만2천원〉

▲Dear. Love(디어. 러브)=조성모의 '피아노', 이승철의 '떠나지마' 등의 가사를 쓴 작사가이자 시인 이 경씨가 5년 만에 펴낸 11번째 시집.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와 서정성 뛰어난 노래 등이 담긴 음반 '북OST'를 함께 제공한다. 〈루이스엔터테인먼트·1만4천800원〉

▲위기의 학교='가디언' 닉 데이비스 기자가 지난 19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연재했던 기사를 모았다. 20년 동안 진행된 영국의 교육개혁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담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우리 교육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준다. 〈우리교육·1만3천원〉

▲두보평전=6년에 걸쳐 100만자에 달하는 두보의 시를 최초로 전역한 한성무 중국 하북대학 교수가 두보의 시를 퍼즐 조각처럼 맞춰 그의 삶을 복원했다. 두보의 시는 문학적 평가 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어 평전을 통해 고대 중국 역사도 곁눈질 해볼 수 있다. 시 250여수가 함께 실렸다. 〈호미·2만4천원〉

▲박지윤의 비밀정원=가수이자 연기자인 박지윤의 첫 번째 사진에세이집. 지난 3년 동안 직접 찍은 사진들과 99가지 사랑에 관한 짧은 글을 실었다. 그의 추억을 담은 사진과 여행 사진, 셀프 포트레이트 등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저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미지가 감성을 자극한다. 〈엘컴퍼니·1만5천원〉